

초등학생 공부 습관 위해 엄마가 알아야 할 것

자료찾는 법 먼저 가르치고 숙제는 처음에만 도와줘라

초등학교 입학 앞둔 부모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초·중·고 공부 레이스 12년째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수월하게 학교 공부도 따라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습관적인 공부'가 가능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남을 하는 것처럼 학업을 보내자니 너무 이른 것 같고, 안 보내자니 내 아이만 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그런데 방법이 문제다.

'뉴 초등학생 공부혁명'(랜덤하우스중앙)의 저자인 교육전문가 김숙희씨는 "올바른 공부 습관을 가진 아이의 엄마들을 만나보면 부모 자식간의 관계가 좋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엄마의 조연과 권위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해 아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김씨의 도움을 받아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챙겨보자.
◇직접 챙겨라=아이들의 성적은 과외 학원의 수나 공부하는 시간의 양과 무관하다. 대부분 부모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다. 학습태도를 길러주는 학원은 없기 때문이다. 학원이나 과외에서는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줄 뿐이다. 아이들은 학원의 스케줄에 따라 공부를 하면 된다.

하지만 아이의 올바른 학습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 환경이다.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엄마가 직접 나서야 하는 것이다. 학습태도를 점검하고 진행사항을 체크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학교 숙제, 처음에만 도와줘라=숙제는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숙지시켜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숙제라도 엄마가 해줘선 안 된다. 특히 마무리하는 아이에게 하도록 해야 '숙제를 마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숙제를 하다 수시로 엄마를 찾아가는 아이에게는 도와주는 횟수를 미리 정해놓는 방법을 쓰면 된다.

엄마는 숙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혼자 하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점차 도와주는 횟수를 줄이면 아이가 숙제에 흥미를 잃을 수 있다. 또 숙제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료 찾는 법과 요약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라=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료 찾기와 요약이 중요해진다. 전과나 인터넷, 백과사전 등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유용한 것은 인터넷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것. 만약 '불과 관련된 순우리말 찾기'를 해야 한다면 아이에게 먼저 순우리말의 의미를 설명하고 생각나는 단어를 말한 뒤 사전을 찾는다고 한다.



초등학교 입학 앞둔 부모는 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지 바란다. 오랫동안 꾸준히 공부하기 위한 지구력이 길러지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해 하순제철초등학교 입학식 장면. <광주일보 자료사진>

요약은 전과를 활용하면 좋다. 교과서의 내용이 수준별로 설명돼 있기 때문에 숙제의 난이도와 양을 점검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하고 요약하는 것을 정리하도록 한다.

◇컴퓨터로는 공부하기 힘들다=어른들도 인터넷을 통한 자료 검색을 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쇼핑이나 뉴스사이트를 헤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한다. 할머님 자제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더 한다. 인터넷 사용은 공부를 하는데 있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컴퓨터의 위치는 우선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얼마동안 컴퓨터를 이용해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정한 뒤 약속을 어겼을 경우 벌까지도 아이와의 상의를 통해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뚜렷한 목표없는 학습지는 끊어라=학습지는 큰 돈 들이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매력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속도대치 않은 채 쌓여 있는 학습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고통스럽다. 아이들이 학습지를 외면하는 것 역시 억지로 하는 공부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라면 끊는 것이 낫다.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익히기 위한 것인지,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한 것인지, 하고 공부의 예·복습이나 등 목표를 정해놓아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이에게 여러 샘플을 보여준 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좋다.

/정성림기자 camus@kwangju.co.kr

내 아이 초등학교 입학 준비 이렇게

최근 광주시서부교육청은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장학자료집 '입학준비 차근차근'을 발간했다.

자료집에 소개된 입학식 준비 요령을 알아본다.

▲복장은 굳이 새 것을 사는 것보다는 활동하기 쉬운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혀면 된다. 단추가 너무 많은 옷이나 용변이 불편한 옷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신발은 혼자서 신고 벗기가 좋은 접착형 운동화가 낫다.

▲책가방=내용물을 넣고 빼기 쉬우며, 잠금 장치가 복잡하지 않은 것이 좋다. 메고 다니기에 편한 밝은 색의 가방을 준비한다.

▲신내화=지나치게 모양이 치중해서 고르기 보다는 활동하기 편하고 실용적인 것을 골라야 한다. 너무 커서 벗겨지기 쉬운 것은 자칫 안전사고 위험도 있을 것으로 피해야 한다.

▲필통=연필, 지우개, 작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면 된다. 지나치게 화려한 것은 피한다. 연필=지우개가 달리지 않은 연필로, 심이 약간 무르고 굵은 2B 연필을 3~4자루 정도 각자 필통에 넣어주면 된다. 3월 초에는 색연필과 크레파스가 종종 필요하다. 지우개=모양이 복잡하지 않고 잘 지워지는 것으로 준비한다. 공책=알림장, 받아쓰기 공책, 종합장, 일기장, 칸공책 등이 필요하지만 시기에 따라 준비하면 된다.

학습동기 부여 7가지 키워드

- 1 좋아하는 과목을 통해 먼저 성취감을 느끼게 하라
2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게 하라
3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라
4 빈정대거나 비교하지 마라
5 잘했을 때는 칭찬과 함께 상을 줘라
6 학원이든 과외든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
7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스스로 느끼게 하라

학습태도 등 꼼꼼하게 살펴 수준에 맞는 문제 풀게 하고 목표없는 학습지는 끊도록

영화안내 Happy Time 영화안니

메가박스 M관 1번가의 기적 (154)

엔터시네마 1관 그놈목소리 (124)

컬럼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김관장vs김관장vs김관장 (154)

컬럼버스시네마 하남점 2관 비밀의 숲 테라비시 (154)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LCE타워(주) 첨단지구 LCE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일가공인중개사 상가건물 매매

믿음공인중개사 첨단지구, 상암동, 월계동 상권지역 토지

동부부동산(주) 1. 광산구 도원동(바야) 12-1의 2필지

토우드공인중개사 토지

다우공인중개사 오봉리 전원주택지 (평당 30만)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ASSET KOREA 주식회사 에셋코리아